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줄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0호 / 발행일 : 2003년 7월 27일

◎ 2003 임직자 선거 ◎

‘장로 10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2명 피택’



선거종료되기 직전 어느 성도의 투표하는 모습

2003 임직자선거 최종 결과

지난 주일 임직자 선출을 위한 2차투표를 실시했다. 총 921명이 투표했고 그 결과 2차에서만 장로 10명, 안수집사 9명, 권사 10명이 피택되었다. 장로 피택자로는 최상용, 김성배, 이지화, 김경빈, 김재현, 이영자A, 김완중, 류달현, 엄주청, 박호길 순으로 2/3 이상 (614표 이상)을 득표했고, 안수집사 피택자로는 서치영, 김익수, 강진식, 김용일, 문완홍, 지유철, 이종복, 임창남, 박동수B 순으로 과반수(461표 이상)를 득표했고, 권사 피택자로는 고선옥, 고정순, 김명애A, 한영미, 최영순B, 강경원, 김선례, 이응분, 이종은, 김금숙 순으로 과반수(461표 이상)를 득표했다.

1, 2차 선거 결과를 포함한 2003년 임직자선거의 최종 결과는 장로 10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2명이 피택되었으며 피택자 최종 명단은 아래와 같다(가나다순).

- 최종피택자 -

- 장로 : 김경빈 김성배 김완중 김재현 류달현 박호길 엄주청 이영자A 이지화 최상용(10명)
- 안수집사 : 강진식 김용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B 서치영 송국환 신정웅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남 최종명(14명)
- 권사 : 강경원 고선옥 고정순 김금숙 김명애A 김선례 유은숙 이승숙 이응분 이종은 최영순B 한영미(12명)

- 2003.7.23. 선거관리위원회 -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년 안에 짓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형편이고, 현재 건축 기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서원석 원장은 땅을 주시고 건축허가를 도와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서 집도 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시멘트 1포대(5,000원)보내기 운동에 참여할 144,000명의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속히 중증장애노인의 집이 건축되어 버림받은 장애인들이 평안한 생애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동순 기자

권사회, 루디아의 집 후원방문

장애인 10여명 공동생활 가평에 새전물 건축 기도중

7월 15일(화) 찬양대 연습실에서 갖은 권사회 월례회에서는 오금동 맹인 양로원 ‘루디아의 집’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그 곳 형편을 생각하여 조를 나누어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7월에는 김양자, 박인숙, 이동순, 이영남, 장혜경 권사가 방문하여 준비해간 음식들로 점심을 대접하였다.

정성어린 애정으로 ‘루디아의 집’을 돌보는 김양자 권사로 인해 할머니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안 그 분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로마서 12장, 시편 1편 등을 막힘없이 암송하는 할머니들의 평안한 모습 속에서 뜨거운 감동과 함께 우리들은 두 눈을 선물로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루디아의 집’은 서천석 원장(MBC 아나운서 2기 출신의 후천성 맹인)과 후천성 맹인 9명, 뇌성마비 1명, 직원 2명이 전셋집 방 세 칸에서 1989년부터 함께 하는 공동체로 얼굴 없는 도움의 손길로 운영되어가고 있다.

개원 이래 15년 동안 버려진 할머니들이 들어오고 싶어하였지만 장소부족으로 거절만 하던 중 한 장애인이 산을 기증하여 가평에 50명을 수용할 수

교회 여름행사 안내

▶ 교회학교 수련회

※ 자세한 문의는 김현령 전도사(☎ 416-5181)에게

교회학교	기 간	장 소
유년부	7월 27일~29일	안성 엄마목장
중등부	7월 27일~29일	강원도 산골아이 놀이학교
고등부	7월 29일~8월 1일	
청년1·2부	8월 10일~14일	강원도 좌운교회

▶ 교구 수련회

※ 자세한 문의는 교구 권사, 교구 안수집사에게

교 구	기 간	장 소
1교구	8월 17일~19일	수동정동제일교회수양관
2교구	7월 28일~30일	광림세미나하우스
6교구	8월 15일~16일	이천 유스호스텔
7교구	8월 8일~9일	둔내 유스호스텔
8교구	7월 27일~28일	양평농원

▶ 2교구 여름수련회

- 주제 : 행복한 가정의 비밀(엡 5:21~33) • 기간 : 7월 28일(월)~29일(화)
- 장소 : 광림세미나하우스 (경기도 포천군 광릉수목원 옆, ☎ 031-544-0515)
- 출발 : 7월 28일(월) 오전 10시 교회1층 현관
- 내용 : 행복한 부부·자녀·직장생활(이상훈 목사),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주수일 장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예배와 영어성경공부(심재련 선생)
- 문의 : 각 구역장과 권찰 또는 이상훈 목사, 최해경 집사, 유은숙 집사



교회의 기둥이 될 그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직자 선거 스케치

질서정연한 진행, 성숙한 선거모습 보여

7월 13일, 20일, 두 주일에 걸쳐 정 신여중고 본관 1층에서는 장로 10인, 안수집사 20인, 권사 20인을 뽑는 선거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치뤄졌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어진 선거는 시종 화기애애하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어린 참여가 있었다.

투표소 입구엔 선거위원장을 위시하여 여러 명의 안내위원들이 수고하였고, 열 명의 참관인들이 친절한 미소로 교우들의 이름과 주소를 일일이 확

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교우들도 교회를 위해 적합한 분을 찾으려고 고심하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느 할아버지는 50여분 동안이나 앉아 생각하며 기표하였고,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있던 분들을 교인수첩을 보며 찾아내 추천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모두들 자신의 주관대로 합당한 일꾼을 선택하느라 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기권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

았다.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공천자들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어 권리행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기표의자가 양쪽 통로 끝까지 놓여져 있고 투표함이 복도중앙을 비롯, 복도 끝에 두 곳 비치되어 있어서 중앙통로에서 기표용지를 받아 복도에서 기표한 후 복도 끝 투표함에 투표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으나 대다수의 성도들이 복도 중앙의 투표함과 그 주변 기표소에 몰리는 바람에 투표용지를 나누어주는 것과 맞물려 다소 혼잡을 빚기도 했다.

/ 김영미 기자

교회말 바르게 알고 씀시다

'예배봐준다' '예배본다'를 '예배드린다'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업예배를 봐준다' '구역예배를 봐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행위이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예배를 봐준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행위요, 응답하는 행위이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드리거나 봐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점을 봐준다'는 미신적인 용어를 상기케 하는 '예배봐준다'는 표현은 예배신학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용어이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유치부 여름수련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되어

선생님들은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 아이들을 기다렸다. 10시가 되면서 아이들이 한 두 명씩 유치부실로 들어왔고, 예배가 시작될 즈음엔 꽤 많은 아이들이 자리하였다. 김현령 전도사의 말씀, 이창현 목사의 축도로 여는 예배가 마치고 본격적인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다는 주제로 성서학습시간을 가진 후 여러 테마가 있는 특별학습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가족의 얼굴을 도장으로 찍어 싸인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테마를 가장 좋아했다. 아이들은 한 테마가 끝나고 다른 테마를 하러 갈 때마다 "물놀이 언제 해요?"하며 물놀이 시간을 기다렸고 그 때마다 간신히 달랬다.

마침내 물놀이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은 유치부실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었다. '통통통'을 부르며 신나

게 준비운동을 한 후 반별로 풀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물총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장난치거나 각자 가지고 온 놀이기구로 풀장을 헤엄쳐 다녔다. 하지만 구름이 끼어 날씨가 흐린 탓인지 물이 많이 차가워서 아이들은 얼마 놀지 못하고 풀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옷을 갈아 입힌 후 차가워진 아이들의 몸을 덥히기위해 같이 게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 후 아이들을 위해 만화영화를 보여준 후 바로 촛불의식이 진행되었다. 고요하고 어두운 유치부실 안에 촛불이 하나 둘씩 원을 그리며 퍼져갔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를 부른 후 미리 준비된 하트 모양의 판에 아이들의 초를 한 사람씩 꽂으니 예쁜 하트 모양의 불꽃이 만들어졌다. 다같이 불을 끄으로써 여름성경학교의 첫 날이 막을 내렸고 선생님들은 각자 맡은 반을 2층의 수련실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씻겨주고 잠을 재웠다.

성경학교 둘째 날 주일 아침,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일찍 일어나 주었고

선생님들은 일정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침식사로 국수를 먹고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에 대한 성서학습을 한 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주제에 대한 동극과 이야기로 특별학습을 진행했다. 그 후 닫는 예배와 반별로 사진촬영 후 여름성경학교는 막을 내렸다.

/ 김재환 교사

영아부 이영란 전도사 사임



영아부를 지도하고 있는 이영란 전도사가 7월 27일부터 사임하게 되었다. 이영란 전도사는 1990년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통합 유아반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 중에 성결대학교 1995년 입학,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년에 입학하여 교역자로서의 길을 준비해 왔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유아부 전도사로 섬겨 왔으며, 오래전부터 해외선교의 비전을 품어 왔던 이영란 전도사는 사임 후 인도 봄베이 한인교회의 담임교역자로 사역을 떠날 예정이다. 봄베이 한인교회는 인도 현지교회를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백종태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해온 곳이다. 한인교회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BOMBAY KOREAN CHURCH CIO, WESLEY CHURCH(CNI) SBS Road Colaba, Bombay 400-037

군에서 온 편지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2일 오전 9시, 주일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초조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향테스트를 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집사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힌다. 교회 안으로 병사들이 삼삼오오 들어오는데 어제 저녁 일을 아무도 모르는 듯 예배 준비에 열중이다.

6월 21일, 집사님들은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군교회를 지원하는 시골교회 두 곳의 음향을 점검해 주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승전교회 음향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희 승전교회 장병들의 신앙전력화를 위해 밤을 꼬박 새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병

사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텐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은 진정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었다. 나는 과연 저 집사님들과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개축하기까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본다. 2001년 3월 13일, 대대장으로 취임하여 예배를 드린 곳은 너무 좁고, 어두우며, 음향도 안 좋아 예배시간이 힘들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병사들의 눈빛은 강렬하고 열성적이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지휘관이 왔다고 더 많이 참여하여 정원 40명 예배당에 100명이나 모여 단상까지 점령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르러 교회를 확장하

고 좀더 장병들이 설 수 있는 정원이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던 중에 지금의 장소로 교회를 옮겨 개축하게 되었다.

개축하기까지 주님의교회 군선교부의 도움으로 음향시설을 설치하게 되었고 2002년 5월,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강석영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나서 다과회 시간에는 교회개축을 위해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은 완전하게 완성은 되지 않았으나 20평이었던 교회를 구병사식당으로 옮겨 70평으로 확장, 내부를 단장하고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 수 있는 음향시설과 이전보다 나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시고, 개축을 위해 기도해주신 덕분에 주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젊은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사들이 군생활하는 동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또다시 밀알이 되어서 '비전 2020'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전역하여 사회로 환원될 때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희 승전교회 장병들은 네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에 단지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교회 집사님을 보면서 저희 승전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고 군 신앙전력화에 더욱 매진하여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육군 ○○ 부대장 올림

2003 임직자 선거 피택자

장로 피택자

<가나다순>



김 경 빈



김 성 배



김 완 중



김 재 현



류 달 현



박 호 길



엄 주 청



이 영 자A



이 지 화



최 상 응

안수집사 피택자

<가나다순>



강 진 식



김 용 일



김 익 수



문 완 홍



박 동 수B



서 치 영



송 국 환



신 정 응



이 단 열



이 중 복



임 창 남



지 유 철



최 중 만



최 중 명

권사 피택자

<가나다순>



강 경 원



고 선 옥



고 정 순



김 금 숙



김 명 애A



김 선 례



유 은 숙



이 승 숙



이 응 분



이 중 은



최 영 순B



한 영 미

성도의 주일기도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과 구름 위에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중족과 종교 갈등으로 인한 생명경시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분노하고, Sars와 경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싸우는 두려움에 절망하며, 특히 저희 나라는 구체제가 허물어져 내리고 개혁의 새로운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혼돈의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무지개 축제를 주님의교회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가 넓은 운동장을 어린아이처럼 달리며 내뿜은 거친 숨결과 잠실벌에 울려 퍼진 응원의 함성과 청년들의 열정적인 춤사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 소년소녀 실버 찬양대의 화음과 전교인이 두 손 높이 들고 올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데 임재하신 주님 음성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국으로 전달될 때 복녘의 동포들까지 천상의 위로 받기 원합니다.

목자되신 하나님! 15년전 너희가 주님의교회라 불러주시고 이재철 목사, 임영수 목사, 문동학 목사를 보내주시 말씀의 꼴로 건강한 청소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년 전 정신여고에 만민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를 지어주시고, 학원선교를 통한 여호와 닮은 것발을 들고 땅끝까지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주님의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춘기의 때를 맞아 문동학 목사를 보내주시고, 기쁨으로 담임목사 위임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현존하는 미래인 청년문화에 대해 합심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과 눈과 귀를 활렐하사 세상을 유월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읽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15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주님의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교회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가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여호와 살롬되시는 평화의 하나님! 각 구역모임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탄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지체들이 마음 속의 들가시와 육신의 가시들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돕는 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평화에 젖어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주님의교회 성도 모두가 거룩한 주의 종되기 원합니다.

이희숙 권사(1-4구역)
‘주일예배 기도’(6월 1일)중에서

영·유아·유치부 부모교육 특강

끄는 부모? 미는 부모?

7월 1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1층)에서 약 80명 가량 모인 가운데 허영림 교수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특강이 열렸다.

부모의 역할은 교육, 통제, 양육 등의 세 가지 기능이 있으며 이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주로 ‘끄는 문화’이고, 미국과 유럽은 ‘미는 문화’이다. 끄는 문화란 부모가 주체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미는 문화란 아이가 주체, 부모는 뒷받침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소극교육’이다. 루소가 주장한 이 소극교육론이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놀이와 공부와 일은 사실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려서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된다. 아이가 놀이의 주체가 되고 역할분담에 있어서 아빠는 신체적인 놀이를, 엄마는 언어적인 놀이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로, ‘통제’의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차가운 시선을 이용하라’이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때리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적절히 이성적인 입장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이 때 아이는 엄마의 표정으로 인해 미안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저절로 엄마의 눈빛을 살피게 되는데 이것이 옳은 통제 방법이라고 하였다.

셋째로, ‘양육’의 기능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보는 기대치에서 엄마는 사랑을 주고 아빠는 정의로움을 준다. 한 인간이 제대로 성숙하려면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 교육학자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신의 이미지, 곧 정의를 배운다고 한다. 때문에 아빠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훈육을 할 때는 아빠가 개입해야 아이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 아이는 변화한다. 그리고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며 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각자의 가정이 변화된다면 이 사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허진 기자

청년부 특강

기획
취재

7월 6일(주일) 오후 3시부터 청년부를 위한 네 가지의 선택특강이 열렸다. 지난 호의 제1,3강에 이어 제2,4강을 요약 연재한다.

제2강

크리스천의 결혼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선택 2강 주제는 ‘크리스천의 올바른 결혼관’으로 박의일 전도사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먼저 프로그램 전문 상담인이 사용자에게 문답해주는 내용을 간략하게 실어본다.

“‘남편 프로그램’에 절망한 사용자에게... ‘예수XP’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수XP는 ‘남편1.0’과 같은 운영 프로그램이지만 하드의 파티션 분할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수XP에는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성령 7.0’이 있어서 ‘남편1.0’으로 다시 부팅할 필요없이 프로그램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기도4.0’이 설치되어 있어서 ‘남편1.0’의 레지스터 정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버 ‘하나님’에 접속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은 오직 ‘예수XP’밖에 없습니다. (주)주님의교회에서도 지금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데에 있다. 그러기에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 결혼 자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상대를 알기 전 상처입은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해야 한다.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기보다 상대의 하나님까지 깊이 사랑하여야 한다. 결혼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버리고 무조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고 상대방을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결혼 전의 계획으로는 부부 큐티시간, 영적성장을 위한 계획, 공동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바른 지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나 친척 어른 뿐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를 만나볼 것을 권장한다.

결혼 전에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서로의 과거나 추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것과 기질이나 MBTI 검사를 받아보는 것, 서로의 부모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표현하는 것 등이다. 결혼 관련 추천도서로는 ‘결혼건축가’(로렌스 J. 크랩)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레스 패로트 부부) 등이 있다.

제4강

크리스천의 직업관
일도 예배처럼

‘크리스천의 소명과 사명, 직업관과 선교’의 주제로 김성관 목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소명의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이 부른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에 있어 소명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카톨릭 교회에서는 수도자,

사제가 되는 것을 뜻하였다. 종교 개혁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소명관, 직업관을 형성하였다.

사명은 ‘무엇을 위해 불렀는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예배의 장소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예배자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으로 보게 된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청년들은 2, 3만 여종의 직업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꼭 전공에 매여 있지 않기를 권한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꾸준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인식, 그리스도인은 직장이 바로 예배장소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함에 있어 주도적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0분 전에 직장 도착하기, 복금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 버리기, 사무실 자원으로 청소하기 등이 그 실례이다. 상대방에게 반응을 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직장에서의 바른 자세는 강태공이 아닌 어부의 심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다.

“노년에 복음의 불모지로 선교하러 가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삶의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봅시다.” / 신지민 기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줄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핸드폰 : 011-466-4736
▶ 이메일 : chhylee@korea.com